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전화: 02)796-6440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즈코리아

ACN 스페셜 리포트: 중동, 하느님 자비의 실천



하느님 자비의 실천 이라크와 시리아, 최전방에서 싸우는 이들

이라크와 시리아의 굶주리고 집 잃은 사람들을 위한 ACN 자비 캠페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합니다.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과 협력에 힘입어 6만여 명의 난민들에게 식량과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에시(또는 다에쉬, IS)를 피해 조상 대대로 지켜 온 고향 땅을 떠나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많은 자선 단체들이 자금 부족 때문에 이제 거의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이 지역을 지원하는 기구는 오직 ACN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리스도의 요람과 같은 중동 지역에서 진행되는 ACN의 수많은 프로젝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ACN은 중동에서 그리스도교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자”(Be God's Mercy)는 ACN 자비 캠페인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영원한 자비의 실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자비는 하느님의 온화한 손길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리아 정교회 수장, 이냐시오 아프렘 2세(Ignatius Aphrem Karim II) 총대주교님과 ACN 중동 지역 프로젝트 파트너인 신 안제이 할렘바(Andrzej Halemba) 신부님은 위협을 무릅쓰고 시리아 반군 거점지인 카리아타인(al-Qaryatayn)을 찾았습니다. 다에시가 카리아타인에서 물러

간 지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총대주교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우리가 조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CN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CN 자비 캠페인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메아리 스페셜 에디션 (2016.06 발행)

사진: 다에시에 의해 파괴된 성 엘리안 성당을 찾으신 시리아 정교회 이냐시오 아프렘 2세 총대주교님

위험지역, 이라크 텔스쿠프 방문

ACN 방문단은 지난 5월, 다에시가 점령했던 이라크 북부 도시 텔스쿠프(Telskuf)를 방문했습니다.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이 전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거리는 황량했습니다. 앙상한 건물 뼈대와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ACN 방문단과 이들의 경호를 맡아주었던 페시메르가(Peshmarga) 민병대를 제외하고는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텔스쿠프는 이라크 북부 지역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ACN 방문단이 도착하기 불과 2주 전에 다에시가 이 지역을 탈환하고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과거 이곳은 4천여 명이 거주하는 아시리아 그리스도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폐하기만 하여,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

까지 듭니다. 오직 페시메르가 민병대만이 주둔하며 24시간 내내 성 제오르지오 성당을 엄호합니다. ACN 방문단이 성당으로 향하는 길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지붕 위에서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에시가 텔스쿠프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내리고 검은 깃발을 꽂았다고 합니다. 드디어 성당에 도착하자, 높이 솟은 종탑과 그 위 무장한 군인들 그리고 다시 세워진 십자가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전 앞은 “악한 용을 물리치는 제오르지오 성인”께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창문의 유리 파편이 널렸고, 파괴된 성모상 등 곳곳에 신성 모독의 흔적들이 산재했습니다. 깊은 충격을 받은 ACN 방문단이 고개를 들어 천정을 올려다보았을 때, 비로소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은 아름다운

최후의 만찬 성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진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에 성화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성전이 다에시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불가사의이자 축복입니다. 제오르지오 성인께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페시메르가 민병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성전을 지키십니다. ACN 방문단은 함께 기도하고, 침묵 속에 성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지역을 빠져 나왔습니다. ACN 방문단은 그곳에서 우리 시대의 “악한 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에시에게 용감하게 맞섰던 이들, 고향을 잃고 어딘가 흩어져 난민이 되었을 이들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세계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바로 저희 ACN의 몫입니다!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시리아 정교회 이나시오 아프렘 2세 총대주교님께서는 지난 4월, 다에시가 철수한 지 1주일 만에 카리아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ACN 중동 지역 프로젝트 파트너인 신 할렘바 신부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하고 그 황폐함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고, 특히 다에시가 고의적으로 파괴한

성전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리아 가톨릭 성 엘리안 수도원과 시리아 정교회 성전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라고 교회 일치 운동을 이끄셨던 총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격으로 인해 피난한 신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터키나 이라크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돕는 최선의 길은

우리가 조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총대주교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ACN은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식량, 거처, 의약품 등의 생필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대주교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CN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과 머물 곳을 허락해 주소서

다에시의 공격 때문에 모술(Mosul)을 떠나야 했던 국내실향민(IDP) 6만 명 이상, ACN은 여전히 그들에게 음식과 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CN 후원자 여러분의 자비에 의지해 사람들이 일상을 살게 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고향 모술에서 인근의 니네베 평원으로 피난을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향 마을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쿠르드 자치구의 임시 보호구역에 머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여러 구호 단체들의 지원은 벌써 끊겼습니다. ACN은 이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야지디인, 사바크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 가정들은 매달 42.50유로(약 53,000원) 상당의 식량 꾸러미를 지원받습니다. 각 꾸러미에는 쌀 10kg, 밀가루 5kg, 토마토 페이스트 800g, 식용유 5리터, 생선 통조림 4통, 콩 6kg, 설탕 5kg, 치즈 5팩, 닭고기 4봉지가 들어 있습니다.

ACN 프로젝트 협력 파트너이신 칼데아 가톨릭 아르빌 대교구장 바샤르 와르다(Bashar Warda) 대주교님께서는 ACN에 계속 도움을 청하는 것이 면목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ACN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민 가정에게는 무엇이든지 간에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남아 있는 유일한 단체인 ACN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와르다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ACN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난민 1만 명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대주교님과 협력하여 아르빌과 주변 지역에 641채의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한 채마다 세 가정씩 머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난민 가정들은 지극ंत 천막이나 트레일러에서 머물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ACN 중동 지역 프로젝트 파트너이신 할렘바 신부님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 Nathalie Ritzman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자 #Be God's Mercy

ACN 자비 캠페인 “하느님 자비의 도구가 되자”(Be God's Mercy)는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신자들에게 자비의 활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 캠페인은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인도적 긴급 지원뿐 아니라 사목적 활동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 라호르 대교구에 안전 시설을 제공하고, 남미 여러 국가에서 약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재활 센터를 세우며,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을 돕는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자비 캠페인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이라크 난민들의 의료 지원을 위한 성금을 전해 주시며 첫 번째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교황님의 기부금은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성 요셉 병원으로 전달되어, 난민들의 무상 의료 지원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churchinneed.or.kr 또는 acnmercy.org/k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이라크 성 베드로 신학교의 신학생 마르틴 바니

이라크 난민 캠프의 한 소녀가 전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리아 말룰라(Ma'loula)에서 왔어요. 제가 살던 마을은 다에시와 알 누스라 전선(al-Nusra Front)이 파괴하고 불태워 버렸지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족에게 당장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오고 있다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으며, 우리도 죽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두고 갑작스레 떠나왔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다른 가족보다 잃은 것도 적었어요. 다들 정말 아무것도 못 챙기고 떠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은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기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요. 저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어요. 아주 작은 기도도, 아주 작은 도움도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가 되니까요. 저는 언젠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 아직 친척들이 남아 있어요. 상황은 나아질 거예요. 우리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시리아는 우리의 고향인걸요. 저의 바람은 바로 세계가 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무엇보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룰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ACN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점령하는 동안 파괴되고 피해를 입은 주택들을 재건하는 등 말룰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레바논의 자흘레(Zahle)로 피난한 시리아 난민 가정에게 물질적, 사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민 캠프에서의 서품식, 새로운 희망을 품는 사람들

이라크 북부 아르빌 난민 캠프에서 서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2014년 8월, 다에시가 이라크 카라코시(Qaraqosh)를 장악하면서 성 에프라임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니네베 평원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레바논에서 남은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 2016년 3월에 드디어 서품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가톨릭 모술 대교구장 부트로스 모셰(Boutros Moshe) 대주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식들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대주교님의 교구인 모술(Mosul)도 카라코시처럼 다에시의 점령하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대주교님께서는 다른 본당에서 초청된 사제들과 함께 서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정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파의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ACN은 이라크, 시리아와 같은 중동 지역의 신학생 양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ACN 후원자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 중동 지역 신학생 및 사제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모셰 대주교님은 말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고향을 잃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소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올 여름에 또 서품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이 어린 사제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신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특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삶을 바치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성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